

法政大学図書館司書課程

メディア情報リテラシー研究 第3卷2号、014-018

特集 インクルーシブなメディア教育とデジタル・シティズンシップ  
(第2回韓日メディア情報リテラシーフォーラム)

## 비판적 유튜브 읽기

김현주, 박한나, 이지현, 유경혜

안녕하세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위해서 유튜브 비판적 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모와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2020년 9월과 11월에 각각 운영한 교육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김현주, 박한나, 이지현 그리고 저 유경혜 4명이 함께 기획하고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4명은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에서 2019년부터 미디어 리터러시 스테디를 해온 미디어 강사들입니다.

10대에게는 유튜브가 소셜미디어를 넘어서 디지털을 접하는 퍼스트 스크린이고, 또 10대는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읽습니다

학부모 교육에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부모들은 스마트폰 언제 사줘야 하나?가 가장 많구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유튜브와 게임 하루에 얼마나 허용해야 하는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유튜브에서 나쁜 콘텐츠를 볼까봐, 또 스마트폰 과의존이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반면 학생들 수업에 가보면 학업 스트레스도 풀고 또 배우는 것도 많은 그 좋은 유튜브를 왜 어른들은 못 보게 하는지 불평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미디어교육 스테디를 하면서 최근 관심이 높아진 팩트체크 교육, 그리고 영상제작교육과 함께 유튜브에 대한 비판적 읽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제작교육에 앞서서 비판적 읽기 교육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유튜브를 탄생하게 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서부터 유튜브의 역사와 특징, 유튜브의 매력, 알고리즘, 문제점, 유튜브의 자체 대응방법, 유튜브 관련 산업과 수익구조, 유튜브 활용법을

비롯하여 디지털 시민성까지 유튜브를 주제로 한 서적, 논문 등 관련 문서를 모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 시간씩 12 차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유튜버가 되어 채널을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하는 교육이라고 상정하고 유튜브의 모든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이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실행할 수 있게 되어서 12 차시 교육안을 8 차시로 압축했습니다 8 차시로 압축하면서 세운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매체인 TV와 유튜브의 차이를 알고 유튜브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에게 적용 가능한 정보를 확인하고, 학습 여가 진로 문화 향유 등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관리, 채널 운영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얻어 자신의 채널을 기획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의 제작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것을 교육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육목표에 맞춰서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콘텐츠 비판적 읽기 그리고 채널 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을 내용으로 디지털 시민으로서 윤리를 비롯한 필수 역량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습니다.

서울 용산 도서관에서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을 실제로 운영했었는데, 용산도서관측에서는 8 차시를 부모교육과 초등학생 자녀교육 각각 4 차시씩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잖아도 매개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희는 다시 유튜브 리터러시를 부모와 자녀라는 다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정리했습니다.

4 차시로 줄여진 프로그램에서의 목표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유튜브는 방송과 다르기 때문에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가 있고, 또 방송과 다르게 심의나 규제가 없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우리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용자들을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것, 이런 유튜브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학습, 여가, 진로, 문화향유 등으로 잘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 이 세가지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먼저 부모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교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교육은 유튜브 아는 만큼 내 아이 교육의 길도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Zoom을 이용해서 진행했구요, 첫 번째 시간에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디지털 사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유튜브의 문제점과 그 원인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

서 강의를 진행했구요,

세 번째 시간은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목적과 편리함에 따른 함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디지털 사회의 시민으로서 무엇이 필요한지, 디지털 시민의 현명한 미디어 이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의 장점을 살려서 채팅과 주식달기 기능을 이용해서 수업 참여를 유도하였고, 성인이었기 때문에 활동지 작성이 아니라 주제 토의 형식으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토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9월에 대표적인 사회적 이슈였죠, 디지털 범죄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의 스마트폰을 검사해야하는가, 우리아이가 보는 유튜브와 나의 걱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가정에서 정한 유튜브 이용 규칙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진행한 초등학교 4 차시 강의는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육 차시별 주제와 내용은 부모 교육과 유사합니다만 초등학교이라는 학습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전달 방식과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유튜브는 모든 것을 담고 있다라는 주제로 유튜브의 매력과 나의 유튜브 이용기록을 살펴보는 수업을 진행했고,

두 번째 시간은 어른들은 왜 유튜브를 마음껏 보지 못하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의 문제점과 비판적 읽기를 이야기 했습니다. 1 차시에 좋은 콘텐츠의 기준을 이야기 해보았다면 2 차시에는 나쁜 콘텐츠의 기준과 그 나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의 의도를 생각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유튜브는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어떻게 알고 있지? 라는 제목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려주고 알고리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건강한 유튜브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의 나와 오프라인의 나를 비교해보고 디지털 발자국을 비롯하여 슬기로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상식과 규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학습자가 초등학교이고, 교육환경이 대면수업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거리와 도구를 준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 이용습관을 점검하기 위해서 유튜브 생활시간표를 그려보고, 생활시간표를 보면서 자신의 미디어 이용 습관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좋은 콘텐츠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고, 스티커로 투표하는 활동을 해보았구요, 영상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콘텐츠 분석하는 활동과 미디어의 특성을 교육하기 위한 OX 퀴즈 등을 활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알고리즘의 이해를 위해서 인기 캐릭터인 펭수에게 유튜브 영상을 추천하는 활동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무척 즐거워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잠시 보시죠.

저희가 정리한 교육의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성과로는 자녀의 육아 도우미 정도로 여겼던 유튜브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했고,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역량과 소비자로서의

미디어 윤리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지도 방법을 비롯하여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이해도가 향상되었습니다.

교수자 성과로는 유튜브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점, 부모와 자녀 각 학습자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한 점, 그리고 대면, 비대면 방식 모두 교육을 실행해 본 점 마지막으로 4명의 협업으로 교육 내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강사 개인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4명이 다시한번 지난 교육경험을 되돌아봤는데요, 지난 교육경험을 통해서 통해서 깨달음이랄까요, 발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과 자신들의 미디어 사용을 다르게 인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부모들은 “나는 비판적으로 적절하게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보다 엄마가 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자신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정확하게 보게 하는 것이 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글은 읽고 쓸 줄 모른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누구나 생각합니다. 숫자를 모르거나 계산을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것, 미디어 콘텐츠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미디어를 TV 혹은 게임기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어와 수학 같은 정규 교과목에서는 학령별 성취수준이 있지만 미디어는 개인이 속한 환경과 관심도에 따라서 편차가 생깁니다. 학생 또는 성인으로 학습자를 구분해서 강의를 준비해서 가지만 사실 현장에 가보면 개인에 따라 수준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인이지만 초등학교 자녀보다 미디어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은 가정 분위기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미디어 활용 역량이 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힘들기도 했고 한편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1인1디바이스 시대에다 알고리즘으로 사실 한 가족이지만 다른 세상을 보고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소통하지 못했던 부모와 자녀간에 유튜브를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로 인해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을 통해서 오히려 세대간 이해의 관계맺음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세대간 소통이 안되고 있다고 말할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시니어 유튜버 밀라논나라든지 과거의 콘텐츠를 담은 탐골공원 등 유튜브를 통해서 오히려 다른 세대를 바라보는 계기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튜브 비판적 읽기를 비롯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은 세대 갈등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점에 서있는 사

람들 간에 이해와 존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